

일제강점기의 가이즈카향나무의 실체

대구 달성(達城) 사적지의 노거수 두 그루를 사례로

김종원

제1저자, 계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전공 부교수, 생태학(식생학) 전공
jwkim@kmu.ac.kr

이정아

교신저자,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박사 과정 수료, 식물학 전공
jungalee3030@gmail.com

- I. 머리말
- II. 달성의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의 수목 현황
- III. 민족식물 향나무와 원예품 가이즈카향나무
- IV. 달성의 가이즈카향나무와 이토 히로부미
- V. 맺음말

I. 머리말

안동 도산서원의 경내에는 금송이 있다.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원 입구 정면에 기념식수 하였으나 고사하면서 안동시가 1973년 4월에 다시 심은 것에서 유래한다. 금송은 일본 특산종¹⁾이고, 또한 일본의 수목문화 상징²⁾이다. 그래서 서원의 정체성에 반한다는 지적으로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고, 급기야 2006년의 1천원 신화폐에서 금송 도안이 빠지는 실마리로 이어졌다.³⁾ 최근에는 사적지에서의 가이즈카향나무가 어상반한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가이즈카향나무를 일제 잔재의 조경수⁴⁾로 지목한 데에서 비롯한다.

시공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시설의 자취가 남아있는 사적지는 역사성뿐 아니라 지아정체성 확인 등의 정신적 공간⁵⁾으로 여긴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사적지는 하나의 공간 즉 땅을 점유하고 있는 일정 영역의 '토지'이다. 식물사회학은 이런 토지를 제한 자원으로 분류하고, 그곳에 뿌리내린 1차생산자 식물을 근거로 해당 토지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성을 해석한다. 생명체가 한 지점에 산다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 존재의 자연적 또는 문화적 동인(動因)이 있다. 이는 생태학적 분포기원(distributional origin)이란 기본 개념에 바탕을 둔다. 해당 입지의 기후적, 토지적 환경조건에 대응하여 저절로 살아가는 것은 자생(nativeness)이며 그 기원은 자연적 동인이고, 사람이 심은 것에서 비롯한다면 인공 기원의 문화적 동인인 것이다. 영어의 네이처(nature)와 컬처(culture)의 어원적 대척성도 거기에 잇닿아 있다.

사적지의 조경 시설물은 인위적으로 배치한 것이며, 특정 시기 사람들의 정신성이 묻어나는 역사의식이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증거이다.

1) 특산종(endemic species)은 '종의 기원'을 따져서 특정 지역에만 저절로 자생(自生) 분포하는 종을 일컫는다. 구상나무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산(아고산대)에서만 제한적으로 자생하는 '한국 특산종'의 사례이다.

2)鈴木三男, 『日本人と木の文化』(東京: 八坂書房), 165-193쪽.

3) 김호태, 「외래수종에 밀린 우리 토종나무의 운명」, 『실천민속학 새책』 4권(2003), 76-78쪽; 송기호, 「시대의 맞수들」, 『대한토목학회지』 58권 1호(2010), 58쪽; 이강일, 「안동 도산서원 내 일본 소나무 담 밖으로 옮겨 심는다」, 《연합뉴스》, 2018년 1월 16일자.

4) 이승형, 「경북도, 현충시설 내 일제 잔재 수목 교체」, 《연합뉴스》, 2015년 1월 19일자.

5) 한성금, 「簡易 崔岾의 사행시에 나타난 對明觀과 현실인식」, 『한국시가문화연구』 33권(2014), 405-411쪽.

그래서 경관(景觀)을 조성(造成)해 간다는 조경(造景)은 그 바탕에 사상과 철학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사적지의 조경은 그 정체성으로부터 결코 독립적일 수가 없다. 기념식수를 포함한 사적지에서 조경 시설물이 역사성과 정신성의 어우러짐을 요구받는 까닭이다.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의 울타리를 에워싸고 있는 북미산 대왕참나무(*Quercus palustris*)가 그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사적지의 '외래수종'에 대한 문제 제기⁶⁾ 또한 그 역사성과 정체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외래수종에 의한 사적지에서의 조경 문제를 생태사회학적 관점에서 밝혀 보고자, 가이즈카향나무⁷⁾를 재료 수종(樹種)으로 삼았다. 일명 왜향(倭香)이라 일컫는 가이즈카향나무는 사실상 으뜸가는 인기 조경수종이다.⁸⁾ 최근에는 국립현충원에서의 일본 나무 제거 청원을 비롯하여,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전통 정신이 보존된 문화유적지로부터 이식 대상 수종으로 취급되는 추세이다.⁹⁾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두고 과도한 시대적 이데올로기의 투영이란 지적도 있고, 비록 일제 잔재라 할지라도 그 역사성을 고려해 보존 가치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¹⁰⁾ 본 연구는 가이즈카향나무의 종분류와 학명, 생태와 분포 기원, 이용에 관한 문화사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당장의 현안으로 등장한 대구 달성(達城)¹¹⁾의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 두 그루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달성은 선사시대 이래로 대구 사람의 정신성이 깃든 곳¹²⁾이기도 하다.

6) 김남철·홍광표, 「三寶寺刹의 造景樹木 植栽現況에 관한 연구」, 『사찰조경연구』 1권 (1992), 33-44쪽; 최수정·오충현, 「한양도성 주변 보전대상 수종 선정 및 관리방안」,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5권 2호(2015), 23-24쪽.

7) 이원호·이소현·신현실,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적용한 서원의 식재 실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권 2호(2013), 38쪽; 이선희 외, 「한국 전통사찰 경내 식재실태 및 식재정비방안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4권 1호(2016), 69쪽.

8) 정재만, 「2000년 이후 한국 중부지방의 조경수목사용 변화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1권 1호(2016), 515-518쪽.

9) 한경환, 「국립현충원에 심었던 '일본 나무' 전부 뽑아낸다」, 《JTBC 뉴스》, 2014년 5월 11일자; 박재철·한상엽·김도균, 「마을의 비보연못 특성 및 관리: 강진 달마지 마을을 사례로」,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1권 4호(2015), 157-165쪽; 장규석, 「조선왕실 건물 앞에 심은 日 가이즈카향나무 제거」, 《노컷뉴스》, 2015년 10월 7자.

10) 나창호, 「현충원 일본수종 제거논란 "식물세계엔 국경이 없다"」, 《라펜트 조경뉴스》, 2014년 5월 28일자.

11) 본고에서는 달성공원 대신에 '달성'이란 본래 명칭을 채택한다.

12) 윤용진, 「대구 달성 성벽 조사」, 『미술사학연구(구 미술사학)』 9권 11호(1968), 500-

II. 달성의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의 수목 현황

달성은 대구 달구벌 분지의 중심부에 솟아 있는 오각형의 오목한 구릉 지형이다.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 두 그루는 동측 경계로부터 약 145m 떨어진 곳의 경내 중심부에 위치한다. 정문 입구에서 서쪽 방향으로 곧장 뻗어 있는 관통 탐방로의 좌측에 나란히 서 있고, 그 바로 앞에는 달성의 잠재자연식생¹³⁾을 대표하는 참느릅나무 노거수가 자생한다(그림1).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 두 그루는 완만한 경사로부터 급해지기 시작하는 경내 미지형에서 토양 수분환경이 양호한 곳에 자리하면서 잘 자라고 있다. 2018년 4월 경의 두 그루 노거수의 수세(樹勢)는 각각 허리높이 직경 3.2m와 3.6m, 근원경(기저부분의 둘레) 3.1m와 3.5m, 나무 높이 7.8m와 8.2m, 수관폭 약 13.9m와 15.6m이다. 이는 큰 우산을 펼친 우람한 모양으로 야생 향나무종류의 생태형과 크게 대비되는 수형이다. 수관(樹冠)을 차지하는 상부 잎 부분은 그대로 둔 채, 일부 굵은 속 줄기를 자르는 수준으로 수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합성 기관을 포함하는 가지나 줄기 정단부를 전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바늘잎은 거의



그림1-달성 경내 중심부에 위치하는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 두 그루(왼쪽 사진 속 중앙 화살표)와 그 앞에 서 있는 달성의 잠재자연식생 참느릅나무 노거수(오른쪽 사진).

501쪽; 이현태, 『대구 달성유적 I: 달성 조사보고서』(국립대구박물관, 2014), 18-27쪽.

13) 잠재자연식생(PNV; Potential natural vegetation)은 해당 지역의 현재 환경조건을 바탕으로 인간간섭을 제외하였을 때 물질적으로 평형 상태를 이루는 이론적 식생이다. (R. Tüxen, 1956. "Die Heutige Potentielle Natürliche Vegetation Als Gegenstand Der Vegetationskartierung" *Angewandte Pflanzensoziologie* Vol. 13(1956) pp. 4-42.)

없고, 식물체 전체는 비늘잎으로 덮여 있는 전형적인 조경원예품의 외형(habit)을 보여준다.

III. 민족식물 향나무와 원예품 가이즈카향나무

향나무는 동해 바다와 맞닿은 울릉도와 한반도 동해안의 해식애(海蝕崖)와 내륙의 정선과 영월 일대의 석회암지역 하식애(河蝕崖) 모바위(岩殼) 절벽에서 자생한다. 이른바 쉬이 다가설 수 없는 '비밀스럽게 숨은 생태적 피난처(cryptic refugia)'가 본래의 서식처이다. 보통의 활엽수종은 살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생육 조건 즉 빈영양(貧營養)의 척박하고 건조한 입지이다. 상록침엽수종 가운데 향나무는 그런 극한환경에 살아가는 느린 생장의 생리생태적 기작을 갖는 종류이다.¹⁴⁾ 향나무의 학명(學名)은 *Juniperus chinensis* L.이고, 종소명 *chinensis*는 계통분류학적 관례에 따라 첫 기재(등록)에 이용된 식물체 표본의 채집지인 중국을 의미한다. 중국 원산이란 뜻은 아니다.¹⁵⁾ 환동해 지역은 자생 기원 향나무의 식물지리학적 분포 중심이자 생태학적 특산(endemism)의 자생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신구, 산가지, 염주, 향재 등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사찰, 궁궐, 정원의 조경수¹⁶⁾로 그리고 '장나무'¹⁷⁾로 불릴 만큼 장지(葬地)에 이르기까지 널리 애용되었다. 해인사에 안치된 9세기의 비로자나불 목불(木佛)¹⁸⁾은 원목의 크기와 지름으로부터 '키운 향나무'를 이용해 만든 유물이었고,¹⁹⁾ 1405년, 1420년 『세종실록』에는 중국사신이 요구한 향목 염주(香木念珠)도 등장한다. 향나무를 길러 널리 보급했던 사찰이 팔공산

14) J. Provan and K. D. Bennett, "Phylogeographic insights into cryptic glacial refugia"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Vol. 23 No. 10(2008), pp. 564-571.

15) 강관권, 『역사와 문화로 읽는 나무사전』(글항아리, 2010), 135-137쪽 참조.

16) 박상진, 『궁궐의 우리나라』(놀와, 2001), 189-194쪽; 「오백년 왕의 숨결과 함께한 창덕궁의 꽃과 나무」, 김동욱 외 공저, 『창덕궁 깊이 읽기』(글항아리, 2012), 223-272쪽; 이선희 외(2016), 앞의 논문, 55쪽.

17) 朝鮮總督府 編纂, 『森林教科書』(朝鮮總督府, 1914), 41-42쪽.

18) 박상진, 「해인사 목조 비로자나불의 재질과 제작연대 분석」, 『해인사 비로자나불 학술강연회 자료집』(2005). 원본자료는 <http://webbuild.knu.ac.kr/~sjpa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불상 조성 연대를 이르면 AD 740년 전후, 늦으면 AD 950년 전후로 추정하기도 한다.

19) 김종원, 『한국식물생태보감 3. 바닷가에 사는 식물』(자연과 생태, 2018 출판예정).

동화사였다는 사실도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향나무는 우리나라 수목문화의 한 축을 차지하며, 식물학적 한국 자생이고 원산이며, 대표적인 한국적 민족식물(ethnobotany) 자원 가운데 하나이다.

가이즈카향나무가 향나무의 원예품(cultivar)이란 사실은 식물계통분류학적 학명에서 확인된다. 학술적 표기는 *Juniperus chinensis* L. 'Kaizuka' 또는 *Juniperus chinensis* L. 'Hornbrookii'이다.²⁰⁾ 'Kaizuka' 또는 'Hornbrookii'는 상품명으로 원예품이란 것을 의미한다. 즉 식물계통분류학의 가장 낮은 분류계급 품종(forma)으로도 취급되지 않는, 자생 생물종(species)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연적(natural) 또는 인공적(man-made, 넓은 의미의 cultural) 기원을 따지는, 즉 어떤 생물체의 존재(분포) 기원에 맞닿은 기본 개념에서 비롯한다. 이른바 가이즈카향나무는 어떤 상품일 뿐, 본질적으로는 향나무 그 자체이다. 향나무는 바늘잎(針葉)과 비늘잎(鱗葉)의 두 가지 모양의 잎을 갖는데, 가이즈카향나무는 바늘잎이 거의 없이 비늘잎으로 된 풍성한 불꽃(火焰) 모양의 개체를 골라내어 상품으로 삼았으며, 향나무 앞에 '가이즈카'라는 명칭을 붙여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부드러운 비늘잎뿐인 가이즈카향나무리는 개체를 심었을지라도, 줄기나 가지의 끝부분에서 가지치기(剪定)를 심하게 하듯 거칠게 다루면 날카로운 바늘잎이 아주 많이 생겨 만지면 다칠 정도가 된다. 이러한 생태형질은 거친 야생 환경에 사는 자연생의 자생 향나무와 똑같은 양상이다.

가이즈카향나무의 일본명 가이즈카이부끼(貝塚伊吹)는 '1928년' 북미와 유럽에 지점을 두었던 일본 요코하마(横浜) 종묘상의 목록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²¹⁾ 간토우(関東) 지방 요코하마 인근에 위치하는 가이즈카(貝塚) 즉 패총 유적지가 있는데, 이 지명이나 관련 씨명(氏名)에 잇닿은 명칭이다. 가이즈카는 불교 중심 도시 카마구라(鎌倉) 인근에 위치한다. 카마구라시 겐쇼사(建長寺)에는 향나무 천연기념물이 현존한다. 일본에서는 향나무를 이부끼(伊吹) 또는 카마구라바꾸신(鎌倉柏楨)이라 부르는

20) The plant list, 「*Juniperus chinensis*」 <http://www.theplantlist.org/tpl1.1/search?q=juniperus+chinensis> (검색일: 2017년 12월 20일); Y-list, 「*Juniperus chinensis*」 http://ylist.info/ylist_detail_display.php?pass=25633 (검색일: 2017년 12월 20일).

21) A. F. Mitchell, "Conifers in the British Isles: A descriptive handbook",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72), p. 322; 米倉浩司·梶田忠, 「BG Plants 和名－学名インデックス」, (YList, 2003).

데, 일부러 식재한 개체와 그로부터 유래하는 몇몇 개체가 인근에 점점이 자생할 뿐이다.²²⁾ 따라서 사찰에서 애용하던 향재로써 향나무를 많이 키웠을 카마구라 불교문화의 파생 상품으로 조경수 가이즈카향나무가 생겨났을 개연성을 짐짓 추정해 볼 수 있다. 장신구 등의 생활용품과 불상 등에 향나무를 이용했던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역사 속에는 적어도 카마구라시대 이전까지 역사 유물로서 조각용재로 향나무를 이용한 예는 없다.²³⁾ 일본 임야청(林野廳)의 노거수 백선(百選)에도 향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²⁴⁾ 결국 1928년 이전까지 가이즈카향나무 즉 가이즈카이부키는 그 명칭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개화기 일본 사회의 공원과 정원의 조경수로 향나무가 적극적으로 이용되면서 생겨난 상품이란 사실로 귀결된다.

한편 일제강점기(1910-1945년) 동안 우리나라 식물 자원에 대한 숭한 기록물 속에는 가이즈카향나무가 나타나지 않는다. '덕수궁의 기하학식 정원의 특성에 맞춰 조형된 조경수를 식재하였고, 대표적인 수종 가운데 하나가 가이즈카향나무'라는 기록이 있다.²⁵⁾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덕수궁의 공원화 및 석조전 정원에 대한 기록²⁶⁾에서 조경식물 목록에 가이즈카향나무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실체는 알 수 없다. 가이즈카이부끼(貝塚伊吹)는 우리나라에서 1976년에 한글명 '나사백'²⁷⁾으로 소개된 바 있고, 가이즈카향나무란 명칭은 1980년에 등장한다.²⁸⁾ 두 문헌 모두 학명에 대응하는 이름을 소개한 수준으로, 식재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가이즈카향나무가 조경수로 널리 알려진 것은 일본 요코하마 종묘상의 1928년 목록 이래로 반세기 가 지난 1970년대 중반 이후임을 알 수 있다.

22) A. Farjon, A monograph of Cupressaceae and Sciadopitys(Richmond: Royal Botanic Gardens, Kew, 2005), p. 262; R. P. Adams, Junipers of the World: the genus Juniperus(Bloomington: Trafford Publishing, 2014), p. 108.

23) 小原二郎, 「第22回 [国民森林会議] 總會記念講演 日本人と木の文化」, 『国民と森林』 89号(2004), 18-25쪽.

24) 牧野和春, 『日本巨樹論』(東京: 惜水社, 2000), 206-211쪽.

25) 정대현, 「1920-30년대부터 '조경수' 수요 생기면서 재배 시작」, 《한국조경신문》, 2018년 1월 6일자.

26) 小田省吾, 『德壽宮史』(李王職, 1938), 70쪽.

27) Lee, Tchangbok, *Vascular plants and their uses in Korea*(Seoul: Kwanak Arboretum,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6), p. 16.

28) 윤국병, 『조경수목학』(일조각, 1980), 197-198쪽.

IV. 달성의 가이즈카향나무와 이토 히로부미

달성은 대구 달구벌 분지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달성 정내 한 가운데에는 일제에 의한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생겨났다는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 두 그루가 있다. 최근 달성의 본래 경관과 역사적 정체성이란 관점에서 이 가이즈카향나무가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다. 달성은 청동기시대 이전부터 정착민이 거주하였고, 그 이후 고분축조시기에 들어와서 토성으로 축조되었다.²⁹⁾ 『삼국사기』에 따르면 서기 261년에 쌓은 달벌성이 달성이며,³⁰⁾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고지도는 달성 또는 달성산으로 기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경상감영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공원화되기 이전에는 성황당이 존치할 만큼 경외시 되던 곳³¹⁾으로, 수백 년 된 큰 나무 수백 그루가 있었고, 무덤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성역 같은 곳이었다.³²⁾

공원의 명칭이 더해진 달성공원이란 지명은 1911년 출판된 『朝鮮大邱一斑』에 처음 기재되었다. 『朝鮮大邱一斑』과 1930년 출판된 『大邱物語』는 대구의 다양한 분야를 담은 기록물로서 ‘달성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원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³³⁾ 이 두 자료에 의하면 대구에 사는 일본인들이 달성을 공원화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논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달성의 공원화는 국권피탈의 1910년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달성은 청일전쟁(1894-1895년) 때 일본병사의 야영지로, 러일전쟁(1904-1905년) 즈음인 1903년, 1904년에는 일본군과 한국군이 대치했던 곳으로, 달성을 인연 깊은 영지(靈地)라면서 “미래에 공원으로 정하고, 시기가 되면 황조천조대신(皇祖天照大神)의 요배소(遙拜所)를 세우기로 내부적으로 이미 정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인들에게도 신성한 장소인 달성을 일본인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첫

29) 윤용진, 앞의 논문(1968), 500-501쪽.

30) 이현태, 앞의 책(2014), 22쪽.

31) 문해진, 「식민지 조선의 國幣小社에 관한 일고찰: 국폐소사의 운영 및 제의 양상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5권(2016), 166-167쪽.

32) 三輪如鐵, 『朝鮮大邱一斑』(玉村書店, 1911), 92-94쪽.

33) 三輪如鐵(1911), 앞의 책 92-94쪽; 河井朝雄, 『大邱物語』(朝鮮民報社, 1930), 38-40쪽, 334쪽.

단계가 공원화하는 것이었다. 공원 조성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요배소를 세우기로 논의한 이후 점차 진행되어, 1905년에 요배전(遙拜殿)이 건립되었고 공원화가 본격화되었다.³⁴⁾ 국권피탈 후 1913년에는 요배전을 대구신사로 이름을 바꾸었고, 1915년에는 증개축을 했다. 1937년에는 국고의 지원을 받아 제사를 지내는 국폐소사(國幣小社) 8곳 중 한 곳으로 승격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도리와 석조물이 철거되었으나, 주요 건물은 유지되면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965년에 관리 주체가 정부에서 대구시로 바뀐 후, 1966년 8월에 옛 신사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현재에는 요배전이나 신사의 어떤 흔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1967년에는 공원조성계획 공모가 시행되었고, 그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비가 되어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³⁵⁾

현재 달성 사적지 마당 한 가운데에 서있는 두 그루의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가 국권피탈 직전 해인 1909년에 달성을 방문한 순종과 이토(伊藤博文)의 기념식수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大邱物語』에 따르면, 이토가 하얼빈에서 암살당한 그 해(1909년)에 두 사람은 대구를 두 차례 (1월 7일과 1월 12일) 방문하였고, 1월 12일에는 달성을 방문하여 기념식수를 하였다. 『朝鮮大邱一斑』은 이토와 함께 달성 방문 이후 서울로 돌아간 순종이 공원화 사업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금일봉 500원을 달성공원기성회에 하사한 사실도 전한다. 그런데 1909년의 기념식수에 관한 내용은 일체 나타나지 않는다. 『朝鮮大邱一斑』의 저자 미와(三輪)는 달성의 공원 경영과 미화를 전적으로 맡았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불과 2년 전에 기념식수한 나무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 여러 정황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 1909년에 있었다던 기념식수 자체가 없었던 일이거나, 둘째, 기념식수한 실체 나무가 어떤 이유에선가 그 사이에 사라졌거나, 셋째, 실제 존재했으나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설이 유력하다. 기념식수일 1월 12일은 엄동설한의 절기로 통상적으로 이삭하

34) Kim, Ilsu, "Colonial Modernization of the Traditional City of Daegu", *Korea Journal* Vol. 8 No. 3(2008), pp. 17-20; 김일수, 「'한일병합' 이전 대구의 일본인거류민단과 식민도시화」, 『한국학논집』 59권(2015), 279-282쪽.

35) 옥희정, 「달성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역사적인 변천과정과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28-30쪽; 문혜진(2016), 앞의 논문, 167-168쪽.

36) 이 내용에 대한 출판물로서의 최초 기재는 사단법인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新택리지』(북랜드, 2007), 46쪽, 63쪽, 560쪽이다.

지 않을뿐더러 식재 이후 뿌리활착 자체가 불가능한 생물계절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기후 환경 속에서 1월은 가장 추운 혹한기이다. 특히 가을부터 이듬해 이른 봄까지의 비생육기는 물 분자가 결빙(結氷)함으로써 이용할 토양수 부족에 대응하는 식물의 강제 휴면 기간이다. 1월은 그 정점의 절기이다. 실제로 기념식수가 있었다는 1909년에 대구의 1월 월평균기온이 0.2℃이었고, 최저기온은 -8℃이었으며, 4월 16일까지도 서리가 내렸다.³⁷⁾ 봄철 서리는 세포내(細胞內) 결빙을 일으키는 식물 생장의 치명적인 제한조건이다. 실제로 대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대륙적인 생물기후구³⁸⁾로서 식물의 성장 환경에 불리한 생물기후권역이다. 1909년 대구의 연중 최저기온은 2월 7일의 -11℃이었다. 1910년의 최저기온은 -14℃³⁹⁾로 오늘날의 최저기온 상황⁴⁰⁾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뿌리가 상한 채 새로운 곳에 이식된 나무는 매서운 추위에 노출되면서 필연적으로 고사하고 만다. 결국 1911년 『朝鮮大邱一斑』이 출판된 시기에는 기념식수 했다던 나무가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공원 미화(美化)를 책임졌던 미와가 기념식수한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부러 적시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1930년의 『大邱物語』는 순종과 이토의 대구 방문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두 사람의 기념식수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기념식수한 나무를 다시 찾았으나 만나볼 수 없어서 못내 아쉬웠다는 사실을 저자 카와이(河井)는 전한다.

“當日達城公園に御成り、陛下親しく記念樹の御手植あり、伊藤公の記念植樹があつたが、今(こん)日は其跡(そのあと)を温(たづ)ぬる由(よし)もない。”⁴¹⁾

‘당일 달성공원에 행차하여, 폐하께서 친히 기념수를 심으시고, 이토 공의 기념식수가 있었지만, 오늘날 그 흔적을 찾아볼 길이 없다.’

기념식수의 개체는 1930년에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朝鮮大邱一斑』이 간행된 1911년 1월 이전부터도 그 나무는

37) 三輪如鐵(1911), 앞의 책, 211-216쪽.

38) 김중원, 『녹지생태학』(월드사이언스, 2004), 37-42쪽.

39) 三輪如鐵(1911), 앞의 책, 211-216쪽.

40) 2018년 대구의 최저기온은 -13.9℃(1월 27일)이다. 기상청, http://www.weather.go.kr/weather/climate/past_cal.jsp (검색일: 2018년 3월 13일).

41) 河井朝雄(1930), 앞의 책, 334쪽.

존재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기념식수 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달성의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 두 그루가 기념식수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2006년의 개인(이정웅) 블로그에서 처음으로 기념식수를 언급하고, 2007년의 『대구신탁리지』가 이를 기록하면서 시작되었다. 2009년 『대구·경북의 명목을 찾아서』에서 그 전개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⁴²⁾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심은 나무가 있었고, 또한 평민도 아닌 황제가 심은 나무라는 사실, 그리고 『大邱物語』의 번역서인 『대구이야기』를 참조하면서 당시 달성공원 관리 공무원과 또 다른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재의 두 노거수가 그 때 기념식수한 나무라는 것으로 추정하기에 이른다. 이로부터 순종과 이토의 가이즈카향나무와의 관련성은 반복해서 강조되었고, 마침내 진실인 낭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실정이다.⁴³⁾ 바야흐로 가이즈카향나무는 이토 히로부미가 좋아하여 달성에 기념식수 하였고,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조경수로 널리 이용되었으며, 일제 청산을 위해 국회의사당 및 국립현충원 등에서 가이즈카향나무를 제거해야한다는 청원까지 일어나는 형국에 이르렀다.⁴⁴⁾

그러나 1909년 달성에서의 기념식수 행사가 실제일지라도 현재의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 두 그루가 순종과 이토가 식재한 조경수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구이야기』의 일본어 원전 『大邱物語』에는 기념식수한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今日は其跡を温める由もない”(오늘날 그 흔적을 찾아볼 길이 없다). 그런데 한글 번역서 『대구이야기』⁴⁵⁾에는 달성의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 두 그루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핵심 대목이 빠져있었던 것이다.

달성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의 논란은 이처럼 실체하지 않는 사실로부터 생겨난 허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게다가 기념식수 했다던 1909년에

42) 이정웅, 『대구·경북의 명목을 찾아서』(아이컴, 2009), 16-20쪽.

43) 이정웅, 『나무, 인문학으로 읽다』(학이사, 2015), 150-154쪽.

44) 이윤옥, 『창씨 개명된 우리 풀꽃』(인물과사상사, 2015), 200-203쪽; 송윤경, 「국회 본청에 '이토 히로부미의 나무'가?... 가이즈카향나무 제거 청원」, 《경향신문》, 2017년 8월 14일자.

45) 카와이 아사오 저, 손필현 역, 『대구이야기』(대구중구문화원, 1988), 244쪽. 『대구이야기』는 河井朝雄(1930)의 『大邱物語』 번역본이며, 원문에는 344쪽에 기재되어 있다.

는 가이즈카향나무라는 식물은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 명칭 또한 존재할 수 없으며, 어느 기록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현존하는 달성의 두 그루 가이즈카향나무는 순종과 이토의 1909년 기념식수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나무인 것이다.

V. 맺음말

사적지는 역사성과 정신성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사적지 복원 과정에서 조경 및 식재된 수목을 선정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적지, 공원, 공공기관 정원 등의 조경에 가이즈카향나무는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고, 그 발단은 대구 달성의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 두 그루이다. 본고는 식물학적 관점에서 가이즈카향나무를 살펴보고, 순종과 이토가 기념식수한 것으로 알려진 달성의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에 대해 당시의 기록을 통해서 생태사회적 그 실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향나무는 예전부터 사찰 등에 식재해왔고, 대표적인 민족식물(ethnobotany) 자원이다. 가이즈카향나무는 그런 향나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생겨난 조경수 상품일 뿐, 식물계통분류학적으로 그 실체는 향나무이다. 가이즈카향나무라는 명칭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28년이고,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이토가 가이즈카향나무를 좋아해서 1909년 달성에 기념 식수하였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알려지면서 널리 퍼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둘째, 현존하는 달성의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 두 그루가 순종과 이토가 기념식수한 나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기념식수에 관한 기록에 나무 종류에 관한 정보는 일체 없었으며, 이미 1930년에 기념식수 나무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또한 기념식수 행사일인 1909년 1월 12일은 추위가 절정인 한겨울이므로 이식이나 식목은 이루어질 수 없는 절기이고, 설사 식재했었다 가정할지라도 이식 개체가 생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생물기후적 정보로 확인되었다.

셋째, 백제 무령왕릉의 목관 목재가 일본 특산종 금송이라고 해서 그 나무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행위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적

역사성과 정신성에 대한 수종의 어우러짐은 논의의 대상이 된다. 도산서원의 기념식수 금송은 그런 정체성과의 불일치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마침내 1천원 신화폐 도안에서 금송이 배제되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지내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금송을 서원 정면(얼굴)에서 비껴선 경내의 특정 위치로 이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체성의 계승 보존이 요구되는 공간에 도입되는 식재 수종의 선정만큼이나 수목의 이식과 제거와 같은 사적지 복원에서 그 역사성과 정신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달성의 가이즈카항나무 사례처럼 사적지 복원에 따른 노거수 제거나 이식의 시도는 대상 식물의 생태사회학적 엄격한 고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제 침탈에 잇닿은 폐쇄적 배타주의의 편승이나 투입을 여과하는 것은 사적지 조경의 복원 과정에서 중차대한 과제로 대두된다. 식재 수종을 포함한 사적지 정체성을 지지하는 경내 조경 관리와 운영은 '생태적 자연사'와 '역사적 문화사'를 바탕으로 하는 학제간 통섭으로부터 성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 三輪如鐵, 『朝鮮大邱一斑』. 玉村書店, 1911.
河井朝雄, 『大邱物語』. 朝鮮民報社, 1930.
카와이 아사오 저, 손필현 역, 『대구이야기』. 대구중구문화원, 1988.
사단법인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新택리지』. 북랜드, 2007.

2. 단행본

- 강관권, 『역사와 문화로 읽는 나무사전』. 글항아리, 2010.
김종원, 『녹지생태학』. 월드사이언스, 2004.
_____, 『한국식물생태보감 3. 바닷가에 사는 식물』. 자연과 생태, 2018 출판예정.
박상진, 『궁궐의 우리나라』. 놀와, 2001.
_____, 「해인사 목조 비로자나불의 재질과 제작연대 분석」. 『해인사 비로자나불 학술강연회 자료집』. 해인사, 2005.
_____, 「오백년 왕의 숨결과 함께한 창덕궁의 꽃과 나무」. 김동욱 외 공저, 『창덕궁 깊이 읽기』. 글항아리, 2012.
윤국병, 『조경수목학』. 일조각, 1980.
이윤옥, 『창씨 개명된 우리 풀꽃』. 인물과사상사, 2015.
이정웅, 『대구·경북의 명목을 찾아서』. 아이컴, 2009.
_____, 『나무, 인문학으로 읽다』. 학이사, 2015.
이현태, 『대구 달성유적 I: 달성 조사보고서』. 국립대구박물관, 2014.

Adams, P. R., *Junipers of the World: the genus Juniperus*. Bloomington: Trafford Publishing, 2014.

Farjon, A., *A monograph of Cupressaceae and Sciadopitys*. Richmond: Royal Botanic Gardens, Kew, 2005.

Lee, Tchangbok, *Vascular plants and their uses in Korea*. Seoul: Kwanak Arboretum,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6.

Mitchell, A. F., *Conifers in the British Isles. A descriptive handbook*.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72.

鈴木三男, 『日本人と木の文化』. 東京: 八坂書房, 2000.

牧野和春, 『日本巨樹論』. 東京: 惜水社, 2000.

米倉浩司·梶田忠, 「BG Plants 和名: 学名インデックス」. YList, 2003.

小田省吾, 『徳壽宮史』. 李王職, 1938.

朝鮮總督府 編纂, 『森林教科書』. 朝鮮總督府, 1914.

3. 논문

- 김남철·홍광표, 「三寶寺刹의 造景樹木 植栽現況에 관한 연구」. 『사찰조경연구』 1권, 1992, 33-44쪽.
- 김일수, 「한일병합 이전 대구의 일본인거류민단과 식민도시화」. 『한국학논집』 59권, 2015, 257-287쪽.
- 김호태, 「외래수종에 밀린 우리 토종나무의 운명」. 『실천민속학 새책』 4권, 2003, 65-85쪽.
- 문혜진, 「식민지 조선의 國幣小社에 관한 일고찰: 국폐소사의 운영 및 제의 양상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5권, 2016, 159-193쪽.
- 박재철·한상엽·김도균, 「마을의 비보연못 특성 및 관리: 강진 달마지 마을을 사례로-」. 『한국농촌계획학회』 21권 4호, 2015, 157-165쪽.
- 송기호, 「시대의 맞수들」. 『대한토목학회지』 58권 11호, 2010, 56-66쪽.
- 옥희정, 「달성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역사적인 변천과정과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윤용진, 「대구 달성 성벽 조사」. 『미술사학연구(구 미술사학)』 9권 11호, 1968, 500-501쪽.
- 이선희 외, 「한국 전통사찰 경내 식재실태 및 식재정비방안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4권 1호, 2016, 53-70쪽.
- 이원호·이소현·신현실,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적용한 서원의 식재 실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권 2호, 2013, 31-42쪽.
- 정재만, 「2000년 이후 한국 중부지방의 조경수목사용 변화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1권 1호, 2016, 511-522쪽.
- 최수정·오충현, 「한양도성 주변 보전대상 수종 선정 및 관리방안」.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5권 2호, 2015, 23-24쪽.
- 한성금, 「簡易 崔嵬의 사행시에 나타난 對明觀과 현실인식」. 『한국시기문화연구』 33권, 2014, 401-428쪽.

Kim, Ilsu, "Colonial Modernization of the Traditional City of Daegu." Korea Journal Vol. 48 No. 3, 2008, pp. 17-20.

Provan, J. and Bennett, K. D., "Phylogeographic insights into cryptic glacial refugia."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Vol. 23 No. 10, 2008, pp. 564-571.

Tüxen, R., "Die Heutige Potentielle Natürliche Vegetation Als Gegenstand Der Vegetationskartierung" *Angewandte Pflanzensoziologie* Vol. 13, 1956, pp. 4-42.

小原二郎, 「第22回 [国民森林会議] 総会記念講演 日本人と木の文化」. 『国民と森林』 89号, 2004, 18-25쪽.

4. 사이트

기상청(weather.go.kr).

The plant list(theplantlist.org).

Y-list(ylist.info).

5. 신문기사

나창호, 「현충원 일본수종 제거논란 “식물세계엔 국경이 없다”. 《라펜트 조경뉴스》, 2014년 5월 28일자.

송윤경, 「국회 본청에 ‘이토 히로부미의 나무’가?……가이즈카향나무 제거 청원」. 《경향신문》, 2017년 8월 14일자.

이강일, 「안동 도산서원 내 일본 소나무 담 밖으로 옮겨심는다」. 《연합뉴스》, 2018년 1월 16일자.

이승형, 「경북도, 현충시설 내 일제 잔재 수목 교체」. 《연합뉴스》, 2015년 1월 19일자.

장규석, 「조선왕실 건물 앞에 심은 日 가이즈카향나무 제거」. 《노컷뉴스》, 2015년 10월 7자.

정대현, 「1920-30년대부터 ‘조경수’ 수요 생기면서 재배 시작」. 《한국조경신문》, 2018년 1월 6일자.

한경환, 「국립현충원에 심었던 ‘일본 나무’ 전부 뽑아낸다」. 《JTBC 뉴스》, 2014년 5월 11일자.

국 문 초 록

사적지에서의 식재종을 포함한 모든 조경 시설물은 특정 시기의 정신성이 묻어나는 역사의식이나 문화를 엿보는 증거 재료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이즈카향나무의 식물학적 실체를 밝히고, 대구 달성의 1909년 1월 12일 순종과 이토 히로부미가 기념식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 두 그루를 통해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이즈카향나무는 1928년 일본 요코하마 종묘상의 목록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조경 상품이고, 식물계통분류학적으로 식물사회학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환동해에서 자생하는 향나무의 원예품이다. 달성의 기념식수에 이용된 나무가 가이즈카향나무라는 근거는 없었고, 기념식수한 해(1909년)에는 그런 나무 이름조차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식재를 가정하더라도 기념식수일 1월 12일은 한겨울로서 이식 나무의 생존이 불가능한 절기였다.

그럼에도 '가이즈카향나무는 이토가 좋아하는 나무이며 기념식수 되었다'는 식으로까지 허구가 낱알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태의 발단은 『大邱物語』에 대한 유일한 한글 번역본인 『대구이야기』에서 기념식수와 관련한 결정적 단락의 누락에서 비롯하였다. 현존하는 달성의 가이즈카향나무 노거수 두 그루와 순종과 이토의 기념식수는 어떤 관련성도 찾을 수 없었다. 더욱이 가이즈카향나무의 실체는 한국인의 민족식물 향나무 그 자체인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향후 과제로서 수종 선정 또는 배제를 포함한 사적지 경관 복원사업에 있어서 일본 침략 사관의 폐쇄적 배타주의 틈입에 관한 생태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투고일 2018. 3. 19.

심사일 2018. 4. 19.

게재 확정일 2018. 5. 30.

주제어(keyword) 가이즈카향나무(Kaizuka juniper), 사적지 복원(Restoration of historical site), 외래수종(Exotic species),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Ito Hirobumi), 향나무(Chinese juniper)

Abstracts

The Truth of Kaizuka juniper (*Juniperus chinensis* L. 'Kaizuka')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Example of Two Large Old Junipers at the Dalseong Historical Site in Daegu

Kim, Jong-won · Lee, jung-a

The decisions and materials used for landscaping, such as planting certain species of choice in historical sites, thus represent the history or culture that is reflective of the spirit of a particular era. The present study examines botanical facts of the Kaizuka juniper, which is widely planted in historical sites around Korea. It delves into the issue by taking up the case of the alleged commemoration planting of two Kaizuka junipers by Joseon's King Sunjong and Ito Hirobumi at the Dalseong historical site on January 12, 1909.

The Japanese name, Kaizukaibuki, first appeared in 1928 in a plant nursery's catalog at Yokohama, Japan. It is a horticultural product of Chinese juniper (*Juniperus chinensis*) which is phylogenetically endemic to the East Sea rim area with the Korean Peninsula at the center. Chronologically, there is no ground to believe that the trees planted in Dalseong were Kaizukaibuki; in fact, even such a tree name was nonexistent in the world in 1909. Furthermore, any tree planted in mid January could not have survived the frigid winter weather in Korea. These facts point to the possibility that the story of the two figures planting Kaizukaibuki in Dalseong was fabricated.

This situation seems to have resulted from the critical omission of paragraphs on the commemoration planting in *Daegu iyagi* (the Story of Daegu), the only Korean translation of Kawai's 1930 *Taikyū Monogatari* (『大邱物語』). We conclude that there is no association between the two large old Kaizukaibuki trees in Dalseong and the story of commemoration planting by the King and Ito, and that the Kaizukaibuki is, in fact, a Korean ethnobotanical plant, *Juniperus chinensis*. In future research, a biosociological analysis needs to be made on the infiltration of closed exclusivism imbued in the Japanese invasionist view of history, when it comes to the landscape restoration of historical sites, including the selection or exclusion of specific plant species.

